

# Sartre에 있어서 自由의 概念

- 人間存在와의 關係에서 -

梁 英 雄

## 目 次

- |                |                  |
|----------------|------------------|
| I. 序 言         | IV. 自由와 事實性 — 狀況 |
| II. 意識의 存在와 自由 | 1. 狀況            |
| III. 意味賦與의 自由  | 2. 狀況의 諸構造       |
|                | V. 結 言           |

## I. 序 言

自由 문제가 논의될 때, 일반적으로, <인간은 처음부터 자유이다>라든가, 혹은 <인간은 사회의 발전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해지곤 한다. <인간이 사회의 발전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해지는 경우일지라도, 자유는 주로 그가 속한 사회 및 그 사회적인 제도와의 연관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회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선 인간이 그의 존재에 있어서, 그의 밖에 있는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듯한 그러한 존재일 수가 없다고 하는 뜻이, 이미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인간은 그 존재 그것에 있어서 이미 전적으로 자유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하다는 것도, 그에 의하면 의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자체가 하나의 전체적이며 자발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게다가 의식의 이 자발성만이 의식의 근본적 특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자유는 자아의 의지도 침범할 수 없는 전반성적 자기 의식의 완전한 자발성이다.

이러 하다는 것도 사르트르에 의하면 자발성은 반성이나 숙고 없이 존재의 차원에서 실존과 동시에 솟아나오는 용수철과 같은 절대적 자발성(spontanéité)이지, 일이 일어난 후에,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궁리하는 반성적, 이차적, 상대적 자발성(volonté)이 아니라고 하기 때

문이다.<sup>1)</sup> 이러 하다면 인간 존재는 자유일 수도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는 반성적, 관조적 입장에 있는 것 따위는 결코 아니고, 오히려 여하한 반성도 미치지 전에 이미 자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를 <존재론적 자유> 혹은 <필연적 자유>라고 불렀으며, 인간 존재는 근원적으로 자유의 존재이도록 운명지어진 존재이다.<sup>2)</sup>고 선언하게 된다.

인간을 의식의 존재로, 의식을 자기 창조의 자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르트르의 인간 해명은, 그에 의하면, 인간은, 또는 의식의 존재는 자유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다. 따라서 의식이 의식인한 그것은 오직 순수 가능성 또는 자유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유는 의식 존재의 속성이 아니라 바로 의식의 존재 그 자체이며, 의식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된다. 이런 뜻에서 사르트르는 자유<의식의 자발성>를 인간 존재의 근본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하다면 의식은 자발성 그 자체가기 때문에, 의식을 제한할 수 있는 듯한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는 자유 바로 그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르트르의 자유의 개념을 인간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명함으로써 사르트르에 있어서 자유의 개념에 의해서 開示된 의식적 존재 구조의 지평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 II. 意識의 存在와 自由

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가, 의식의 존재는 自由 그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식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了解하면서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存在了解의 근거를 사르트르는 非定立的 自己意識으로 규정한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對象에 관한 모든 定立的 의식은 동시에 자기 자신에 관한 非定立的 의식이다. 즉 의식은 항상 초월적인 대상을 정립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비 정립적인 의식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는 모든 의식은 존재함의 의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의식은 그것이 의식하고 있는 바의 의식과 전혀 하나인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지각의 의식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지각으로서 규정된다」<sup>3)</sup>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이 <자기에 관한> 의식은 하나의 새로운 의식 따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인데, 만약 그렇

1) 申午鉞, 사르트르의 人間存在論, 文學과 知性社, 1982. p.258.

2) Jean Paul Sartre, L'Être et le Néant: Essai d'ontologie phénoménologique, Gallimard, 1943; dt. übers.; Das Sein und das Nichts, Hambary, 1976, S.84 혹은 S.642. 이후부터 S.u.N로 略稱함, 또 申午鉞 사르트르의 人間存在論, 文學과 知性社, 1982, p.258 및 p.249 참조.

3) S. u. N, s.24.

다고 한다면 자기에 관한 비 정립적인 의식을 정립적 하나의 성질로 해버리며, 심적인 사건을 하나의 사물로서 성격지우는 것이 되고, 드디어는 그가 엄격히 배척했던 <저 인식의 이론적 우위>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 하면 「심리적 사건이 그것에 관한 의식 이전에 존재한다든지 하는 따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sup>4)</sup> Sartre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기에 관한 의식이란, 그에 의하면, 결코 하나의 새로운 의식이 아니고, 「어느 사물에 관한 하나의 의식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존재의 방식」<sup>5)</sup>인 것이고, 더구나 이 <자기에 관한 의식>은 前反省的인 것이라고 Sartre는 주장한다. 이와 같이 Sartre에 있어서는, 이 두개의 의식은 의식의 존재 그것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cogito>는 절대적 확실성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확실히, 의식이 공간적인 사물 따위라고 한다면 그것에는 惰性이라든가 受動性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공간적인 사물을 알기 위해서는 射映에 의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결코 <半 — 無意識>(undemi-consient)이라든가 受動性 따위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의식이 스스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射映에 호소하는 따위는 결코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다는 것도, Sartre에 의하면, 「의식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나 의식인 것이고, 그러므로 의식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밖에는 한정될 수 없는 것이다」<sup>6)</sup>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Sartre는, 의식은 자기 한정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의식 자신에 의한 한정>을 하나의 발생이라든가 또 하나의 생성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그러하지 않고 만약 의식의 자기 한정을 발생 및 생성으로 생각한다면 의식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앞서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게다가 그는 「이 자기 창조(création de soi)를 하나의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sup>8)</sup>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 것도 만약에 의식의 자기 창조를 하나의 행위로 생각한다면, 실로 의식은 행위로서의 자기에 관한 의식이기도 하다는 것으로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Sartre는 「의식은 하나의 충실한 존재(un plein d'existence)이고, 의식의 이 <자기에 의한 자기 한정>은 하나의 본질적인 특징이다」<sup>9)</sup>라고 말한다.

그런데 Sartre는 <자기 원인>(cause de soi)이라는 표현을 濫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

4) ,ibid.  
5) ibid.  
6) ibid, s. 26.  
7) ibid.  
8) ibid.  
9) ibid, s. 27.

한다.<sup>10)</sup> 왜냐 하면 이 표현은 하나의 進行, 즉 <원인인 자기>와 <결과인 자기>와의 관계를 예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는 오히려 「의식은 그것 자신에 의해서 존재한다」<sup>11)</sup>라고 말해져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의식이 <무에서부터 이끌어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그와 같이 이해한다면, 인간은 의식 이전(이전의 무)에 존재한다고 하는 背理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지만, 그러하지 않고 의식 <이전>에는 오직 충실한 존재만이 생각될 뿐이고 따라서 그 충실한 존재의 어떠한 요소도 不在의 의식을 가리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샤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의식의 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이미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의식과, 아울러 최초의 의식의 무를 再認(recognition)의 종합으로서 세워 놓는 하나의 證人으로서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왜냐 하면 의식은 무에 앞선 것이고, 존재로부터 자기를 <끌어내는>(setiret)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라고, 그리고 샤르트르는 여기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로「어떠한 것도 의식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sup>13)</sup>, 그리고 둘째로「의식은 그 자체의 존재 방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sup>14)</sup>; 이것이 샤르트르의 志向性的 해명에서 끌어내어진 의식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해서 좋을 것이다.

실제로 의식의 존재의 근본 특징이 지향성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의미에서라 할지라도 수동성은 의식에서 排除될 것이다. 수동적인 존재란, 샤르트르에 의하면, 「자기를 만드는 힘도또한 자기를 보존하는 힘도 가지지 아니하고 存續하는 하나의 존재」<sup>15)</sup> 그것을 의미한다. 의식이 이러한 수동적 존재이고, 惰性的 존재이라고 한다면, 의식은 어떠한 사물에선가 올 수 있는 것으로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샤르트르는 「만일 의식이 어떤 사물에선가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의식은 오는 것일까」<sup>16)</sup>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 학파라면, 그것은 無意識에서 온다고 대답할 것이고, 유물론자라면, 그것은 大腦 따위의 생리학적 또는 물질적인 영역을 지적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의식이 무의식의 영역이라든가, 생리학적 또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에는 이러한 영역이 어떠한 본연의 자세를 취하는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어디에서 그의 존재를 끌어내 오는 것일까 라고 묻지 않으면 아니되고, 결국 수동적 존재의 개념에 되돌려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샤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에서 끌어내지 아니하는 이러한 非—意識的인 주어진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의 존재를 존

10) ibid.

11) ibid.

12) ibid, s. 21.

13) ibid.

14) ibid.

15) ibid.

16) ibid.

속시키고, 어떻게 해서 의식을 만들어내는 힘을 발견하게 되는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sup>17)</sup>고.

이와 같이 사르트르에 있어서 「의식은 본질에 대한 존재의 우위에 의해서 정의되는 절대자」<sup>18)</sup>로 된다. 더우기 이 절대자로서의 의식은 실체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러하다는 것도 「의식은 그것이 나타나는 한에서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하나의 순수한〈나타남〉이다」<sup>19)</sup>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식에 있어서는 나타남과 존재는 하나」<sup>20)</sup>이고, 따라서 의식을 실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식에서는 일체의 수동성이 배제되고, 의식은 다만 지향성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특징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한 이상 의식은 自發性 그것으로서 밖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의식은 자유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도달한다.

한편 사르트르에 있어서는 의식이 對自存在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인간 존재의 존재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는 자기를 끊임없이 了解하면서 결국 승인하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 존재는 존재 그것에 있어서 자유이다, 고 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자기 요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는 자기의 존재 그것을 세계에서 끌어내어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하다면 인간적 자유란 인간의 본질에 선행하는 것이고, 오히려 본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재를 구별함이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즉 인간 존재가 우선 존재하고 그 후에 하나의 성질로서 자유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인간이 자유이다〉는 것과의 사이에는 전혀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고, 또한 존재할 수조차 없다<sup>21)</sup>고 하는 것이다.

### Ⅲ. 意味賦與의 自由

그러면 사르트르가 주장하는 자유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에 있어서는, 「사물은 그것 자체로는 中性이고, 이러한 사물에 대해서, 의식은 완전히 자유로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구성하고 그 세계를 살아 간다는 것」<sup>22)</sup>이기 때문에, 결국 자유란 의미 부여의 완전한 자

17) *ibid.*

18) *ibid.*

19) *ibid.*, s. 29.

20) *ibid.*

21) *ibid.*, s. 41.

22) *ibid.*, s. 640.

\*) 사르트르에 있어서 존재자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모없는 것, 즉 덩어리져 있고, 불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의 의식과는 너무나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구토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이 존재자와 밀착된 인간 존재는 필연적으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Jean Paul Sartre, *La Nausée*, Gallimard, 1939: 李囊榮譯, 노오벨文學全集 7, 서울 新丘文化社, 참조.

유로서 생각되고 있다.

샤르트르에 의하면, 우리는 日常性에 있어서 存在者를 넓은 뜻의 道具로서 취급하고 있지만, 결국, 거기에서는 존재자가 우리들의 여러 가지 관심에 의해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일상적인 관심을 배제해서 직접적으로 존재자 그것이 開示되는 存在論的 地平에 있어서는, 존재자 그것은 우리에게 구토<sup>23)</sup>를 일으키게 하는 듯한 것이고, 그러하다는 것도, 우리들은 일상적으로는 존재자와 극히 친밀하게 접하고 있고, 존재자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친밀성을 제거한 지평에 있어서의 존재자는 無規定的인, 다만 그것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sup>23)</sup>

샤르트르는 그와 같은 존재를 卽自存在(être-en-soi), 즉 자체에 있어서의 존재로서 받아 들인다. 그리고 그는 이 즉자 존재에 대해서 세 개의 구조를 서술한다. 첫째, 「존재는 그것 자체에 있어서 존재한다(L'être est en soi)」<sup>24)</sup>는 것이다.

결국 존재라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가 아니라, 自體(soi)이다. 왜냐 하면 존재는 자기 자신과 전적으로 밀착하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란 자기를 실현할 수 없는 하나의 內在이며, 자기를 긍정할 수 없는 하나의 긍정이며, 작용할 수 없는 하나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존재란 그것이 존재하는 바의 것이다(L'être est ce qu'il est)」<sup>25i)</sup>고 하는 것이다. 샤르트르에 의하면 존재는 자기에 관한 의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가리켜 보이지는 않는다. 존재는 자기 자신에 밀착되어 있고, 처음에 거기에는 어떠한 간격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와의 관계일 수 없다. 존재는 이와 같이 그것 자체에 있어서 총만 해 있기 때문에, 존재는 그것 자체에 있어서 불투명한 것이다. 따라서 존재란,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있지 않을 바의 것이 아닐 수조차도 없는 것이며, 또한 존재는 완전히 無規定的인 그것 자체이고, 그것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에는 시간성이 없는 것이다. 세번째로, 샤르트르는 「즉자 존재는 있다(L'être-en-soi)」<sup>25ii)</sup>고 말한다. 즉 존재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끌어내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존재가 필연적인 것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즉자 존재의 우연성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즉자 존재는 결코 가능한 것도 아니며 또한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즉자 존재는 창조되지도 아니하고 또한 존재 이유도 갖지 아니하며, 다른 존재자와의 사이에 관계도 갖는 일 없이 영원히 쓸모 없는(de trop)<sup>26)</sup>것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3) S. u. N, s. 626 ~ 627 참조.

24) S. u. N, s. 50.

25i) Ibid.

25ii) Ibid.

\*) 쓸모없다 또는 불필요하다는 등으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그의 주저『존재와 무』 및 그의 철학소설『구토』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사르트르에 의하면, 즉자 존재는 단지 존재하고 있다고 밖에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定과 否定의 저 쪽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 그것 자체가 인간에 있어서 얼마 간의 의미를 갖는 따위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존재에 의미를 주는 것이 對自로서의 인간 존재이다, 고 한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옮겨 놓고자 한다면 대단한 저항이 되는 바위는, 반대로 내가 거기에 올라서 경치를 보려고 한다면, 귀중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 자체에 있어서는 — 가령 이 바위가 그 자체에 있어서 무엇으로 있을 수 있을까를 고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 이 바위는 〈中性〉이다」<sup>26)</sup>고. 이와 같이 바위 그것이 그것 자체로 무엇인가의 장애물로서, 또는 도움을 주는 물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미는 우리들의 자유인 投企(Entwurf)에 의해서 꺾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그 바위를 옮겨 놓으려고 한다면, 그 위에 올라서 경치를 보려고 하는 따위를 投企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항을 나타내는 일도 또한 귀중한 도움물이 되는 일 따위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자 그것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그것에 의미를 주는 것은 對自存在로서의 인간의 投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르트르에 의하면 선택과 의식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動機나 動因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의혹은 세계의 여러 구조에 있어서의 價値賦與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목적의 定立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對自의 企圖인 선택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선택이 無意識的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 선택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는 의식과 하나인 것이다」<sup>27)</sup>고 말한다. 게다가 이 의식은 우리의 존재와 다른 것이 아닌, 非定立的인 의식인 것이고, 더우기 인간 존재의 존재란 확실히 인간 존재의 근원적 선택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의 비정립적 의식이란, 인간 존재가 갖는 비정립적 자기의식과 동일한 것이다.<sup>28)</sup> 이와 같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이어야만 하고, 또한 의식적이기 위해서는 선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선택과 의식은 하나이고 둘이 아니다」<sup>29)</sup>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 의미를 주는 것은 의식임이 틀림없다는 것이 된다. 더구나 대자로서의 의식을 한정할 수 있을 듯한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인 자유로 사물에 의미를 준다는 것으로 된다. 나아가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의 길동무의 한 사람이 하이킹을 한다는 것도, 그가 오르려고 하는 산이나, 그가 횡단하고자 하는 숲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야말로 그 여러산이나 숲의 뜻을 드러내는 자이고자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26) S. u. N., S. 620.

27) Ibid., s. 657.

28) Ibid.

29) Ibid.

고, 게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여러 산과 숲을 그들의 존재 그 자체 안에 근거짓는 자이고자 시도하는 것이라고」<sup>30)</sup>

이와 같이 의식은 존재자에게 의미를 주도록 운명지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식의 환경과 생애를 샹르르르는 『보 - 들레 - 르』 속에서 다음과 같이 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의식은 우선 처음에 완전한 無價性<sup>\*</sup>에 있어서 원인도 목적도 없이 창조되지도 않고 정당화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미 존재한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는 존재의 어떠한 자격도 갖는 일 없이 자기를 파악한다. 의식은 자신의 바깥에, 구실이나 변명 혹은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왜냐 하면 우선 처음에 의식이 의식 자신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의식에 의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어떠한 것도 의식이 정말 그것에 부착시키려고 하는 의미 이외의 뜻을 갖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sup>31)</sup> 라고.

#### IV. 自由와 事實性 — 狀況

##### 1. 狀 況

사람들은 때때로 자유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예컨대 인생은 마음대로 안된다. 뿐만아니라 보잘것없는 관습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다 등등, 그러나 자유에 관해서 論議할 때 다음의 事項을 看過해서는 안된다고 샹르르르는 주장한다. 그것은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잘 해 나간다는 것과는 別個의 문제라」<sup>31i)</sup> 는 점이다. 확실히 상식적인 사고에서 처럼, 自由的 存在라는 것은 자기의 계획을 實現可能的인 존재이기는 하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목적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적을 心中에 안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실로 자유의 문제는 그러한 것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것도, 샹르르르에 의하면 「사람이 자유이다 라는 것은 意欲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유란 자기 자신에서 어떤 선택으로 自己決定하는 것이다. 가령 捕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달아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또 석방을 꿈꾸는 마음의 자유가 있다 라는 의미도 아니다. 탈주를 企圖(Entwurf) 함, 즉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자유이다」<sup>32)</sup> 고 하기 때문이

30) Ibid, s.653.

\* ) andré Gide의 소설 『법황청의 지하실』에 표현된 사상으로서, 무상의 행위란 外的條件에 의해 자유를 상실한 자의 行爲의 放棄이다. 이 용어를 샹르르르는 그의 많은 저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

31) Jean Paul Sartre, Baudelaire: Précède d'une note de Michel Leiris, Gallimard; 1947; English trans. Martin Turnell, Baudelaire. London; Horizon, 1949, New York; Direction, 1950, p.30.

31i) S. u. N, s. 616.

32) Ibid, s. 617.

다. 즉 자유는 단순한 의식의 문제도 아니고 의식적 실제라는 境地도 아니다. 그에 의하면 「자유는 세계와 관계하는 對自的 存在의 態度, 즉 행동의 문제」<sup>33)</sup>이다.

그러하다면 세계에 관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미 우리가 보아왔듯이, 실로 세계의 여러 사물들은 그것 자체만 으로서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등의 障害도 아니며 도움도 아니다.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할 때에만 그 사물이 장애가 된다든지, 도움이 된다든지일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사물이 우리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一定한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인 고로, 자유의 만남의 障礙와 제한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이다.<sup>34)</sup> 라고 말해져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世界—內—存在>로서의 자기를 자각시키는 근거는 그 사람의 목적이나 라고 싸르트르는 말한다. 또한 그에 의하면, 목적이라는 것은 아직도 현실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즉 현재 그렇게 있는 상태와는 다른 다가오는 상태가 목적이다. 이에 싸르트르는 「목적은 세운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否定해서 새로운 미래의 상태를 계획하는 것이다」<sup>35)</sup> 라고 하여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초월하는 동시에 세계를 초월해 가는 自覺的·主體的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對自存在는 자유이나, 자유 그것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의 환경과 생애를 싸르트르는 『存在와 無』속에서 「자유는 인간의 운명이다」<sup>36)</sup>고 하고, 또 『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에서는 「인간은 자유의 선고를 받은 자이다」<sup>37)</sup>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하다면 인간이 목적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다 라는 자기 자신의 본성은 우리들로서는 所與(주어진 것)임이 틀림없다. 만약 <자유이라는 것>의 가능성과 <자유가 아닌 것>의 가능성이 다 같이 우리 앞에 주어져 그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들의 자유이다 라고 한다면, 자유에 앞서는 자유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무한히 溯及될 것이다. 이에 싸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로 선택하는 존재이기는 하나, 자기가 자유임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sup>38)</sup>고 하여, 인간 존재는 자유의 안에 떨어져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對自로서의 인간 존재가 자유가 아님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싸르트르는 자유의 <事實性>(Geworfenheit)이라고 부른다.<sup>39)</sup>

한편 자유가 자기의 근거가 아니다 라는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만

33) Ibid. s.618.

34) Ibid. s.612 및 s.617 참조.

35) Ibid. s.613.

36) Ibid. s.614.

37) Jean Paul Sartre: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Nagel, 1946 (方坤譯, 노오벨文學全集 7. 서울 신구문화사, 1972), p.372.

38) S. u. N, 615.

39) Ibid, s.616.

약 자유로운 對自存在의 實存까지도 자유로 결정된다고 하면, 다만 자유가 아닌 것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實存하지 않는 것도 가능(자유)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자기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는 않고, 썬트르에 의하면 「자기의 實存을 無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을 함이 對自存在의 존재 방식이다」<sup>40)</sup>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로이 실존하고 있는 데 언제나 그러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떨어져 있는 존재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자유라는 사실은 그 이상 이유를 붙일 수 없는 근원적 사실임이 확실하다. 이유를 붙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썬트르는 이것을 자유의 우연성<sup>41)</sup>이라고 하고, 또 세계에 있어서 여러 존재에 둘러 싸여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對自存在(自由)의 존재 방식을 <狀況>(Situation)<sup>42)</sup>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상황>은 부정되며 無로 되는 與件(即自의 우연성)과, 부정하는 對自存在(자유)와의 共同產物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쪽이 缺如되어도 상황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가 對自存在의 영역인지 또 어디까지가 即自存在에 속하는가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與件>이 자유의 밖에 그것과 떨어져 우선 존재하고 다음에 자유에 의해서 거기에 관계하는 그러한 관계일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與件이 이러 이렇한 사물로서 우리들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들이 자유로이 목적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對自存在의 無化라는 존재 방식이 그 자신으로서 無意味한 即自存在를 一定한 목적의 입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관계시킴·의미를 줌·질서 주고 있음이 상황인 것이다.<sup>43)</sup>

이와 같이 썬트르는 <인간이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자유 그것이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간 존재는 자신의 상황을 자유 그것에 의해서 의무지우고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간 존재가 상황에 의해서 자신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日常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생리적 상태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규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자기를 만든다>기는 커녕, 오히려 예를 들면 기후라든가 풍토, 인종, 계급, 언어, 자신이 속하고 있는 집단의 역사, 유전, 유아기의 환경, 이미 익숙해져 있는 관습 등의 여러 사건 따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조차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썬트르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선 생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생리적 상태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부정해 버리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령 내가 친구와 같이 소

40) 小林利裕, 實存哲學の道(京都:三和書房, 1955), p.215.

41) S. u. N., s. 618.

42) Ibid.

43) Ibid., 619 및 620 참조.

풍간다고 하자. 몇 시간 걸고 난 후에 나의 피로가 겹쳐서 드디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이른다. 나도 한번은 저항해보나 돌연히 포기해서 피로에 굴복하여 배낭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넘어지듯이 주저 앉는다. 친구들은 나의 행동을 비난할 것이다. 그리하여 바로 이로 인해서 그들은 내가 자유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누구도 또 아무 것도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나는 피로를 참고 친구들과 같이 행동하며 숙영지에서 쉴 때까지 참아 나갈 수 있다고 말할 것이고, 나는 내가 대단히 피로해 있었다고 변명할 것이다.<sup>44)</sup> 이와같은 경우 나의 피로라는 신체적 혹은 생리적 상태에 의해서 나의 결의가 규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르트르는 「피로는 그것 만으로는 나의 결정을 야기시킬 수 없다」<sup>45)</sup> 고 말한다. 왜냐 하면 피로라는 것은 「내가 나의 신체를 존재시키는 방식 (la façon dont j'existe mon corps)이기 때문이다」<sup>46)</sup> 고 한다. 즉 사르트르에 의하면 피로는 결코 定立的 의식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의식의 사실성」<sup>47)</sup> 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의식의 대상은, 주위의 환경 세계이지, 결코 내가 피로를 대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피로의 도가 점차로 증가해 오며 따라 이윽고 내가 나의 피로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는 <나의 의식의 사실성>인 피로에 나는 하나의 해석을, 따라서 하나의 의미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하나의 반성적인 의식이 나의 피로를 만듦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피로에 하나의 가치와 내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의 관계를 주기 위해서 나의 피로에 스스로를 향하게 한다. 피로가 나에게 있어서 참을 수 있는 것으로서 또는 참을 수 없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도 다만 이와 같은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피로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결코 나를 굴복시킬 수 없고, 오히려 반성적인 對自가 출현하는 것에 의해서 이 피로를 참기 어려운 것으로서 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sup>48)</sup> 라고. 이와 같이 피로 그것 자체가 나의 얼마간의 행동을 직접 야기시킨다는 따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록 피로가 참기 어려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어떠한 해석을, 결국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어디까지나 나의 자유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 2. 狀況의 諸構造

그러면 인간을 <만든다> (faire)고 빈번히 말해지는 여러 사실 — 예컨대 기후, 풍토, 인종,

44) Ibid, s.624.

45) Ibid.

46) Ibid.

47) Ibid, s.623.

48) Ibid, s.624.

계급, 언어 등 — 은 어떻게 설명되는 것일까. 샤프트르에 의하면 決定論者들은 인간을 규정한다고 하는 여러 사실을 지적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事物의 逆行率(le coefficient d'adversité des chases)」<sup>49)</sup>은 자유를 반론하고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하다는 것도 「이 역행률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이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목적을 미리 정립하는 것에 의해서이다」<sup>50)</sup>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빈번히 사물의 저항을 지각한다. — 예를 들면 내가 이 컵을 나의 입에 가져가려고 할 때에 나는 이 컵의 무게를 지각한다 — 는 것이지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세계 속에 나타나게 한 하나의 道具復合속에 그 컵이 들어 갈때에 나는 그 저항을 지각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샤프트르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만 사물의 역행률이 생긴다는 것이어서, 우리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인 사물은 결코 그것 자체로서는 우리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sup>51)</sup>

이러한 이유로 샤프트르는 그것 자체로 우리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裸形의 事物>(choses brutes)이라고 했던 따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가령 그러한 <나형의 事物>이 우리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자유 그것이 이미 목적을 구성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사물이 우리에게 저항을 보일 수 있다함은 우리가 얼마간의 목적을 설정해서 자유를 投企하기 때문이다<sup>52)</sup>고 한다. 확실히 행동의 자유라는 것은 사물의 저항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사물에 의해서도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샤프트르에 의하면 그러한 사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인간의 목표 설정과 그것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의 투기에 의해서의 일이고, 이러한 선택과 투기는 완전히 자유인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다시한번 「한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이다」<sup>53)</sup>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殘餘>(résiduum)<sup>54)</sup>라는 것이 계속해서 엄연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샤프트르도 인정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의 자유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하나의 세계 속에 있어서, 오르기 쉬운, 혹은 오르기 힘든 바위는 이 소여(잔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여는 원초적인 자유의 한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자유로서 출현하는 것은 주어진 소여 — 즉 裸形의 卽自 그것의 그늘에서이다」<sup>55)</sup>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投企가 곧 실현된다고 할 때, 이것은 投企의 목적이 어떠한 저항도 없이 실현

49) Ibid, s.145 및 627.

50) Ibid, s.145.

51) Ibid, 628.

52) Ibid.

53) Ibid, 152 및 630.

54) 즉자에 속하는 상태, 이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여분, 잔여 혹은 소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함.

55) S. u. N, s. 635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投企의 목적은 사물의 역행률을 통과해야만 한다. 더구나 행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능성 목적의 단순한 투기>가 <그 목적의 실현>에서 선험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만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만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나는 <가능>과 <실현>이 이미 어떤 구별됨이 없이 아주 얽은 세계의 안에 있게 되고, 자신의 의식이 변화하는 대로 세계를 보게 된다」<sup>56)</sup> 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사물이 조금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에 주어져 있는, 결국 체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물 그것은 그것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는 일은 결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의해서 체험되고 있지 않는 사물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의미적으로 중성인 존재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sup>57)</sup>

그러나 일상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고 더우기 이 세계는 내가 아직 부여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나에게 향해서 던져오는 것으로 조차 생각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사르트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사르트르는 우리의 구체적 상황을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實存의 세계층을 지적한다. 첫째, 「이미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도구(驛, 鐵道の時刻表, 藝術作品, 動員포스타)」, 둘째는 「내가 이미 나의 것으로서 발견하는 의미(나의 국적, 나의 인종, 나의 신체적 외관)」, 그리고 셋째는 「이것들의 의미가 지시하는 歸趨中心으로서의 他人」<sup>57)</sup>이다. 이것들은 사물의 역행률에 대해서 인간적인 역행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적 역행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타인의 존재에 의해서일 것이다. 즉 본래 나는 사물에 의미를 주는 존재자인 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 하나의 세계에 구속되어 있고, 더구나 이 세계는 내가 거기에 부여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를 향해서 던져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sup>58)</sup>

하지만 사르트르는 여기서도 자유의 근원성을 한결같이 주장한다. 결국 인간적인 역행률이 나에게 대해서 나타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자유인 投企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標識이나 指示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그것 자체만으로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하다는 것도 도구나 지시기가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의 投企에 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他人의 존재라는 문제가 있다. 결국 사용범이라든가 지시, 명령, 금지, 게시판 따위라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으로서의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에 따르는 한에 있어서만 나는 사사로운 타인의 목표에 따르고 그리고 사사로운 타

56) Ibid. s.143 및 s.627.

57) S.u.N. s.645.

58) Ibid.

인의 技術에 의해서 그것들의 목표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 된다.<sup>59)</sup> 그렇다면 나의 자유는 이러한 여러 사실성에 이르러서 나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나의 자유인 선택을 둘러싼 하나의 有意味의인 세계의 조직으로서의 상황은 거기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課하는 하나의 상태라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하다면 나의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한계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타인의 존재임에 틀림없다. 타인의 출현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어떤 종류의 결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에게 있어서는, 이 나는 教授도 아니고, 카페의 보이도 아니며, 또한 아틈답지도 추하지 않다는 따위.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내가 타인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 뿐이고, 내가 나의 바깥에서 갖는 것인 이러한 의미를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은 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실감할 수 없는> (irréalisable) 것이다.<sup>60)</sup>

이와 같이 샤르트르는 우리의 상황을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實在의 세계층을 지적하고 그것들은 결국 셋째번의 것, 즉 여러 가지 의미를 지시하는 歸趨中心으로서의 <他人의 存在>에 귀착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타인의 출현이라고 해도 그 타인이 단순한 객체로서 받아들여진 타인이라면 조금도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없지만, 만약 <全體 — 他人>이 <主體 — 나>와 만났을 경우에는, 샤르트르의 <눈초리> (regard)의 이론에 의하면, 내가 主體性을 상실하고 <主體 — 他人>에 의해서 객체화되어 있는 것을 의식하든가 혹은 그와는 반대로 내가 타인에게 눈초리를 되돌리는 것에 의해서 타인을 객체화 해버리든지 한다. 그리고 타인의 자유에 의해서 나의 자유가 바깥에서 탈취당하는 것을 샤르트르는 疎外(alienation)라고 부른다.<sup>61)</sup> 하지만 이것이 타인의 자유가 나의 자유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하다는 것도 샤르트르에 의하면 <그와 같은 자유인 타인이 나에게 눈초리를 향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와 같이 말하는 것 자체 속에 이미 내가 타인을 자유의 존재로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 되고, 그 위에 타인의 자유인 존재가 승인되고, 타인에 의해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 자체가 외부로부터 박탈된 자유 존재로서의 자기를 다시 내면화하려고 하는 나의 자유인 투기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sup>62)</sup>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는 타인에 의해서 한계지어져 있다고 생각된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것으로서 인수하지 않으면, 그러한 타인에 의한 자유의 한계지움이라는 것도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샤르트르는 「자유는 전체이고 무한이다. 이것은 자유가 도저히 한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결코 한계를 만

59) Ibid, s.647.

60) Ibid, s.737.

61) Ibid, s.653.

62) Ibid, s.654.

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sup>63)</sup>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샤르트르에 의하면 자유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듯한 타인의 자유에 있어서도 그 자유가 開示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인 投企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자유라는 것은, 확실히 샤르트르가 말하듯이, <전적이고 무한하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은 선택의 완전한 자율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64)</sup>

## V. 結 言

이상에서 우리는 샤르트르가 해명한 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의 자유에 대하여 의식의 志向性(intention)에서 출발하여 사물에 의미를 주는 것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자유와 사실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샤르트르는 인간 존재를 對自存在로서 받아들이면서 대자 존재의 구조를 의식의 존재로 규정한다. 나아가 의식의 자유를 인간 존재의 근본 특징으로 보아, 의식에서 일체의 수동성을 배제하고 의식을 다만 지향성에 의해서 특징지움으로써 의식을 자발성 그것으로서 받아들인다.

한편 샤르트르에 있어서 의식은 인간 존재의 存在方式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는 존재 그것에 있어서 자유이다 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리하여 사물은 그것 자체로는 의미상으로 中性이고 이러한 사물에 대해서 의미를 주는 것은 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유인 선택이며, 게다가 이 선택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는 의식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의식은 그 존재 그것에 있어서 자유이라고 하는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샤르트르에 있어서의 자유 개념의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의 완전한 자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절대주의」<sup>65)</sup>에서는 상황과 세계의 성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실제로 사물이 그의 역행성을 보이는 것은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이라고 해도, 자유만에 의해서는 역행성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상황이나 세계라는 것에서도 결코 인간의 자유인 선택만으로 성립할 수 없을 듯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샤르트르의 자유론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겨나오는 것은, 종종 지적되고 있듯이, 그가 의식의 수동성을 捨棄하고 의식이라는 것은 자발성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샤르트르에 의하면 의식이라는 것은 信憑(croyance)으로 되어있지만, 그렇다면 의식을

63) Ibid, s.655.

64) Ibid, s.645 ~ 656 참조.

65) Stephan Strasser, *Phänomenologie und Erfahrungswissenschaft von Menschen*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64). s.25 에 따름.

다만 자발성으로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인간이 세계 속에서 실존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점이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는 샹트르르 자유론의 강점이고 또한 약점이 되기도 한다.

**Zusammenfassung**

**Über den Begriff der Freiheit bei Sartre**

*Yang Yong-ung*

In dieser Arbeit habe ich versucht, im Zusammenhang mit dem Menschenwesen den Begriff der Freiheit zu interpretieren, die im Hauptwerk von Sartre "Das Sein und das Nichts" behandelt wird.

Bei Sartre wird das Menschenwesen als des Für-sich-Sein aufgefaßt, und dieses wird als das Sein des Bewußtseins bestimmt. Darüber hinaus wird die Freiheit des Bewußtseins als Grundzüge des Menschenwesens betrachtet.

Deshalb wird die Passivität aus dem Bewußtsein ausgeschlossen. Das Bewußtsein wird als Spontaneität angesehen, indem sich die Freiheit durch Intentionalität kennzeichnet.

Bei Sartre soll das Menschenwesen im Sein an sich frei sein, weil das Bewußtsein eine Art von Seinsweise das Menschenwesen ist. Folglich ist die Sache an sich in diesem Sinne neutral. Es ist eine freie Wahl vom Menschen als dem Sein des Bewußtseins, solch einer Sache eine wichtige Bedeutung beizumessen. Das Bewußtsein soll im Sein an sich frei sein, weil die Wahl mit dem Bewußtsein identisch ist, das wir uns gegenüber haben.

Nun können wir uns hier mit Grandzügen der Sartrescher Freiheitsbegriff auseinandersetzen. Bei Sartre ist die Freiheit schließlich eine vollständige spontaneität der Wahl.